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원가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조업기술 개선을 통한 고순도 페로실리콘 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오늘의 성과를 넘어서 더 높은 시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FeSi



SIMPAC STORY

2020 | VOL. 49

Tomorrow x Together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다



SIMPAC STORY

Tomorrow × Together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다

FOCUS ON



04
SUCCESS STORY
SIMPAC 프레스BU의
성장 스토리와 경쟁력을
집중 분석

INSIDE SIMPAC



16
현장속으로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의
현장을 찾아 그들의 도전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다

OUR STORY



30
위라벨 큐레이션
SIMPAC인들을 위한
세대별 위라벨 탐구

34
심팩 Talk Talk
협력, 화합, 팀웍 등에 대한
SIMPAC의 조직문화 설문조사



40
SIMPAC_STARGRAM
'함께'를 주제로
SIMPAC인들의
일상을 공유

42
우리들의 이야기

CONTENTS



통권 49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0년 7월 3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터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kr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SIMPAC 프레스BU
남윤기 대리 032-510-0024 yknam@simpac.co.kr
김효리 사원 032-510-0040 hyrkim@simpac.co.kr
㈜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고현정 사원 054-271-8932 hjko@simpac.co.kr
㈜리스텍비즈
김영철 과장 061-797-2012 yckim@simpac.co.kr



10
제품탐구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이슈 및 핵심 제품의
심층 소개

12
10문 10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SIMPAC 프레스의 주역들

14
SIMPAC News



22
심팩 인사이트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생산팀 전기로반 남호문 주임
'용감한 시민상' 수상



26
공감토크
구매팀의 노하우와
애환 등 다양한 공감을
엇들다

FOCUS ON

SUCCESS STORY × SIMPAC PRESS BU

대한민국 프레스의 역사를 써 내려가다

SIMPAC 프레스BU가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프레스 발전상과 궤를 같이한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No.1 프레스 전문기업'으로서,
두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향하다

SIMPAC 프레스BU의 탄생은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동성개발공업으로 출발, 우리나라 프레스의 첫 걸음을 뒀고 1989년 쌍용정공으로 이름을 바꾸며 자부심을 이어 나갔다. 1991년 국내 최초로 프레스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95년 프레스 업계 최초로 ISO9001을 획득하여 국제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이듬해 1,500톤 이하 크랭크리스(Crankless) 프레스에 대해 EM 마크(Excellent Machine Mark·우수품질 마크제도)를 받음으로써 해외 진출의 탄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

프레스BU는 2001년 쌍용그룹에서 분리 독립, 'SIMPAC'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이어진 국내시장 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04년 말레이시아 및 중국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중국 쑤저우(Suzhou)사무소를 개설했다. 2006년 태국법인 설립 후, 이를 교두보 삼아 2007년 중국 둥관(Donguan) 사무소와 인도-터키사무소를 개설하며 글로벌 프레스 전문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갔다. 덕분에 2009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중소기업'에 포함됐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SIMPAC 프레스BU는 그 명성에 걸맞게 5,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10년 '세계공작기계 매출 100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SIMPAC 프레스BU는 이후에도 세계시장 개척에 꾸준히 힘을 쏟았다. 2016년 미국 및 멕시코법인 설립으로 아메리카 대륙 공략의 초석을 세웠다. 2017년에는 독일에 유럽법인을 설립, 세계적 동향 및 선진 기술 파악과 유럽 시장 본격 진출에 나섰다. 나아가 2018년 8월에는 체코법인을 출범, 세계를 주도하는 프레스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73 | 대한민국 프레스 생산 전초기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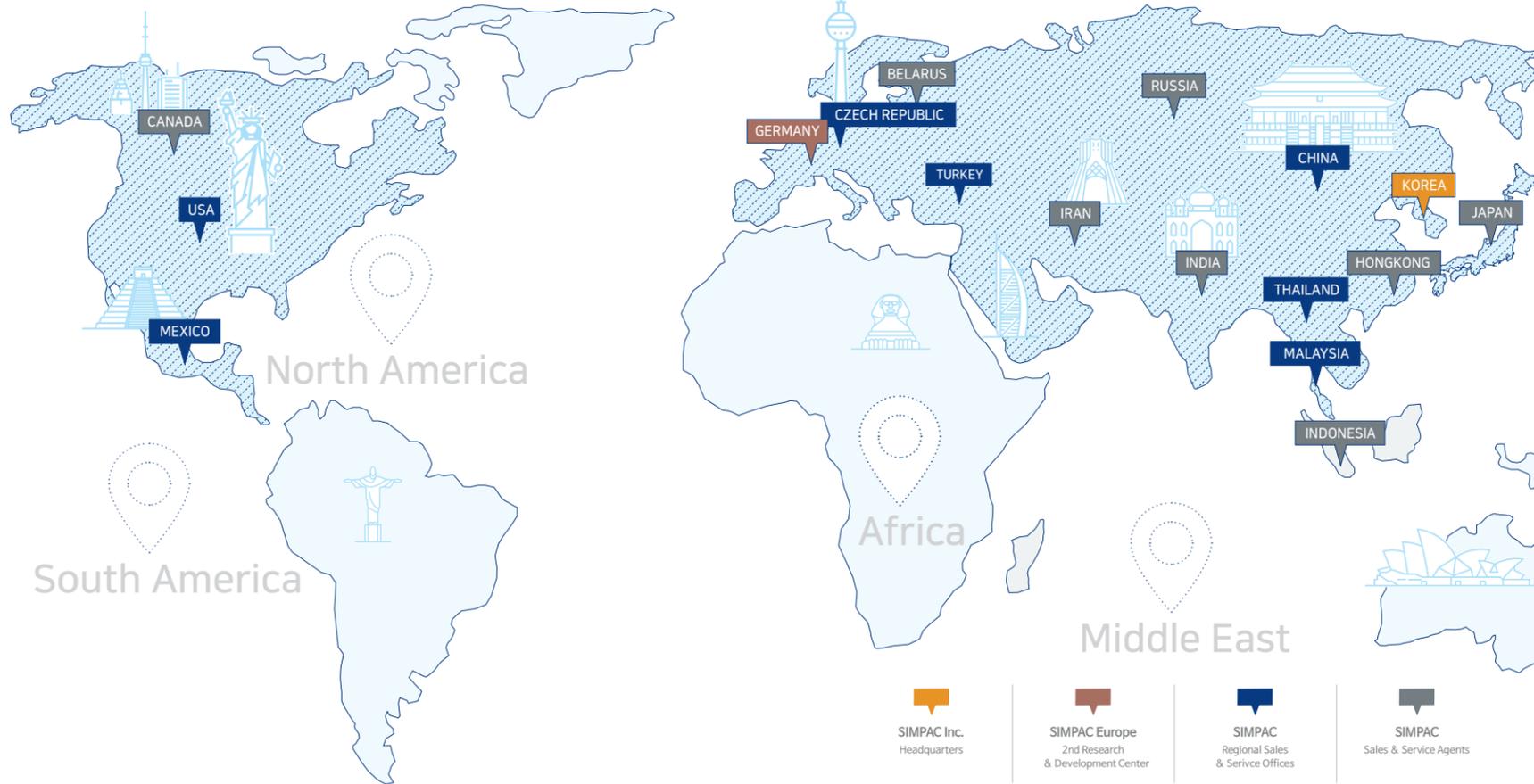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 기술적 진화

이렇듯 SIMPAC 프레스BU가 활발하게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첨단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 2단 감속이 가능해 사출 정밀도를 높은 CS시리즈를 기반으로 이를 한층 소형화한 ECS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후 LCD 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LCD 제품의 앞면과 뒷 패널 성형을 위해 프레스 사이즈 또한 덩치를 키워야 했고, 이에 따라 용량 증대와 정밀 프로그래시브(Progressive) 가공이 가능한 MC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았다.

SIMPAC 프레스BU는 뒤이어 활성화된 공장 자동화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공장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의 자동화가 필수적이었는데, 이에 따라 고객사에서는 프레스에 소재를 인입하고 추출하는 과정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레스를 원했다. 이에 따라 SIMPAC 프레스BU도 트랜스퍼(Transfer)프레스 개발에 착수하여 2013년 2,500톤급 트랜스퍼프레스 'DTL4-2500'을 개발했으며, 다음 해 용량을 한층 늘린 'DTL4-2600'을 개발해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편 기계식·유압식프레스에서 서보(Servo)모터를 활용한 서보프레스로의 전환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SIMPAC 프레스BU는 동작속도가 일정한 일반 기계식프레스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링크(Link)프레스를 2006년도에 개발했다. 소재 성형 순간에 프레스 동작속도를 줄여 제품 손상을 줄인 프레스로, 일반 기계식프레스 수준의 생산속도를 내면서도 프레스에 의한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생산의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하나의 프레스로 만들고 싶다는 고객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SIMPAC 프레스BU는 2006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서보프레스 개발에 돌입, 2007년 'SV4P-700'을 완성하며 본격적인 서보프레스 시대를 열었고 관련 특허도 다수 취득했다.

Global Network



국내영업팀 김상덕 대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영업활동이 줄어들었는데요.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지식을 재정비하는 한편, 내부 고객인 유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데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 이후의 영업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외영업팀 손영준 대리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해 비대면 영업활동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객의 시차에 맞춰 컨퍼런스 콜을 실시하고, 화상으로 요구사항을 받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언택트(Untact) 시대’의 영업,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개발팀 김명호 과장
 “보다 가볍고 작으면서도 현 수준 이상의 성능을 지닌 프레스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과 구동부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IMPAC 프레스의 기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01 | 새로운 도전의 시작 |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SIMPAC 프레스BU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적 실행으로 세계적 프레스 전문기업 반열에 올랐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주한 프레스의 80%가량이 해외 수출 제품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을 향한 도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계 기술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독일에 프레스를 수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해외영업팀은 고객의 요구와 회사의 역량을 적절하게 조율하며 최적의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개발팀과 기계-전기설계팀은 설계 최적화와 표준화, 각 부분 개선 및 보안을 병행하며 SIMPAC 프레스만의 탄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생산팀은 납기를 칼 같이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화·표준화에 힘을 쏟았다. 이처럼 각 부문이 혁신을 거듭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분에 SIMPAC 프레스BU 임직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프레스 시장은 '자동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최첨단에서 경쟁하는 SIMPAC 프레스BU도 트랜스퍼프레스와 서보프레스 기술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퍼프레스에 서보모터를 장착한 서보트랜스퍼프레스를 2016년 개발 완료했고, 독일과 미국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높은 성장 가능성을 몸소 증명했다. SIMPAC 프레스BU는 앞으로 시장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춰 연구 개발에 몰두해, 프레스 업계를 혁신하는 선두주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 요구도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비표준 프레스의 발주량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SIMPAC 프레스BU는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서 다른 기업에서 꺼리는 비표준 프레스 수주를 적극적으로 맡아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쌓인 고객 맞춤형 제작 역량은, 복잡다단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회사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SIMPAC 프레스BU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2010

· 세계공작기계 매출 100대 기업 선정(가드너)

2013

· 트랜스퍼 프레스 DTL4-2500 개발

2014

· SIMPAC인더스트리 계열사 편입
· 서보프레스 SV4P-1200, SV4P-1600 개발
· 트랜스퍼프레스 DTL4-2600 개발

2010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66 세계공작기계 100대 기업 기록 99

2011년 공작기계전문 조사기관 가드너사 Metalworking Insider's Report 발표, 2009년 회계연도 기준, 세계공작기계업체 매출순위 83위 기록



기계설계팀 이정민 과장

“최적의 프레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프레스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이 상생 발전하는 기계설계팀을 향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전기설계팀 지광희 과장

“저희 팀은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부품과 사양을 조금씩 표준화해서 설계 오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보프레스는 전기설계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굳은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생산팀 박석희 대리

“생산 품질은 고객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한편 품질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여 회사 이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의 최고의 엔지니어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기꺼이 구슬땀 흘리겠습니다.”

2020

2016

· SIMPAC America, SIMPAC Mexico 설립

2017

· SIMPAC Europe(독일) 설립

2018

· SIMPAC메탈 전략적 통합
· SIMPAC Czech 설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메이커, SIMPAC

국내 1위의 프레스 전문기업 SIMPAC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자동차 부품업체, 가전 및 LCD 금속부품에 사용되 프레스기를 생산하며 범용 프레스시장에서 50% 이상, 중대형 프레스 시장에서도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SIMPAC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를 적극 반영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SIMPAC의 폭넓은 제품라인에는 기계식프레스, 유압프레스, 서보프레스, 텐덤라인, 자동화 솔루션 등이 있다.



Mechanical Press

Mechanical Press 35~2000(ton)

안전성, 조작성, 생산성을 추구,
가공물의 광범위한 성형가공에
다양한 기능을 보유



Servo Press

Servo Press -
Series 150~2000 (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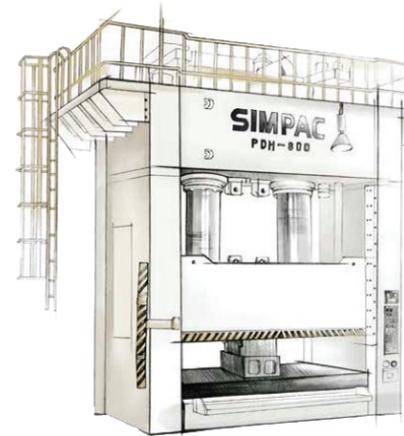
고 생산성, 고 정도,
환경 친화적 프리모션 프레스,
제품 생산에 맞게 슬라이드 모션 최적화 가능



Hydraulic Press

PH / PDH - Series 150~5000 (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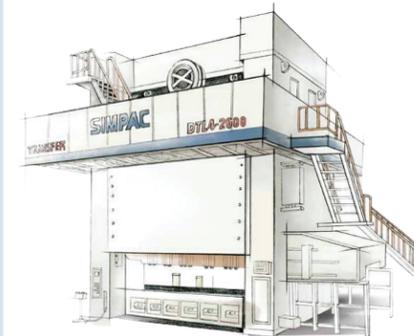
광범위한 성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 유압 System, 고강성 구조로 고정밀
성형에 적합한 Hydraulic Press



Transfer Press

Transfer Press - Series 300~2500 (ton)

고속, 연속 작업으로 생산능력 극대화,
편심하중극복을 위한 특별 설계 구조,
안정성, 내구성을 가진 연속 작업으로
고 생산성 실현



Press Automation

프레스와 연동하여 고객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단위생산성 향상,
가공품의 정밀도 증대, 금형 준비시간
최소화 시스템 등
Full Auto에 적합한 프레스 라인



» 기계설계팀 이정민 과장



» 개발팀 김명호 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SIMPAC 프레스의 주역들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대표 프레스 전문기업으로 군림한 SIMPAC 프레스BU. 이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때다.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프레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우 6인의 재기발랄한 입담에 귀 기울여 보자.

< SIMPAC 프레스BU
🔍

Q.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손영준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무조건 48시간 내에 답을 드려요. 답이 안 나왔더라도 언제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달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각자의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죠.

박석희
떠오른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지금 당장 시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야 잊어버리지도 않거니와, 업무 혁신 속도도 한층 빨라집니다.

이정민
저희 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문의를 드립니다. 머리를 맞대면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보다 문제가 빨리 풀리곤 하더군요.

지광희
다른 팀원들도 관련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틈틈이 정리합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지만 큰 업무 팀이죠.

김명호
개발한 프레스가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와, 영업팀으로부터 고객이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

김상덕
모두가 합심해서 납품한 프레스를 바탕으로 또 다시 수주를 받으면 '내가 영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이 높아져요.

손영준
저는 해외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켜지 않아요. 그래야 드라마를 즐기면서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놀면서 공부하는 비결이죠, 하하!

지광희
PLC 프로그램과 함께 모션 컨트롤러라는 프로그램을 설계에 쓰는데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C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상덕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을 항상 되새겨요. 그러면 사람 대하는 일이 좀 더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죠.

박석희
생산팀은 원가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어서 그런지, '일단 도전해 보자'는 생각을 항상 갖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Q.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손영준
저는 해외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켜지 않아요. 그래야 드라마를 즐기면서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놀면서 공부하는 비결이죠, 하하!

Q. 마음에 새긴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김상덕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을 항상 되새겨요. 그러면 사람 대하는 일이 좀 더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죠.

박석희
생산팀은 원가를 시도하는 분위기가 잘 잡혀 있어서 그런지, '일단 도전해 보자'는 생각을 항상 갖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Q.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김명호
개발한 프레스가 현장에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와, 영업팀으로부터 고객이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

+
Send

Q.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이정민
한때는 술로 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강아지를 키우는데, 퇴근하고 들어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힐링하고 있어요.

지광희
아무 생각 없이 맘을 흥뻑 흘리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날아가더군요. 저는 조깅과 산책으로 주로 합니다.

Q. 성공적인 업무의 필수 조건인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김명호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티타임을 가져요. 이때는 업무 얘기를 일절 안 하죠. 그리고 나면 한결 끈끈해지고 손발도 잘 맞습니다.

김상덕
평소에 서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휴가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메워 주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Q. '좋은 동료'의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석희
선의를 경쟁심은 갖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좋은 동료라고 생각해요.

지광희
기본적으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좋은 동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봐요. 소위 말해 '일 인분'은 해야 한다는 거죠.

Q.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상덕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충실히 내실을 다져야 내일이 더욱 밝아집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이정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데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때까지 잘 버텨주세요! 기계설계팀 총무인 제가 근사한 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하!

Q. 나에게 SIMPAC은 ()이다!

이정민
SIMPAC은 '기회'입니다. 입사 후 결혼도 하고, 두 딸도 낳고, 중견 직원으로 성장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열어 준 회사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김명호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입사했는데, 어느덧 SIMPAC과 함께하는 앞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회사는 '미래'입니다.

박석희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도 사회생활은 힘들기 마련인데요. 사회에서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다는 점에서 SIMPAC은 '제2의 학교'처럼 느껴져요.

김상덕
때로는 힘들지만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SIMPAC은 저에게 '동반자'죠.

손영준
첫 직장이었던 SIMPAC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1년 간 일했는데요. 역시 SIMPAC만 한 곳이 없더군요. 마치 '조강지처'처럼 말입니다. 하하!

지광희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 줬기에, 저에게 SIMPAC은 초석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 초석 위에 '글로벌 No.1 프레스 전문기업'이라는 금자탑을 쌓겠습니다!

+
Send

SIMPAC NEWS

SIMPAC 메탈BU 2020. 2. 25

전기로반 남호문 주임 “용감한 시민상” 표창

지난 2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서산지청장 표창 “용감한 시민상” 수여식이 있었다. 대상자는 생산팀 전기로반 남호문 주임으로, 서산지청이 설립 후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1호 표창장으로 이례적이며, 의미가 큰 표창장이었다.

표창을 받은 사유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남호문 주임을 재난대응에 이바지한 공으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8월 26일 밤 12시 5분쯤 당진시 소재 A빌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불은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을 앓아 오던 정신질환자인 B씨가 자신의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 16개를 올려놓은 후 불을 붙이는 바람에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남호문 주임은 연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옥상 입구에 쓰러져 있던 옆집 C씨를 발견했다. C씨는 옥상 문이 잠겨 있어 옥상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연기를 들이마신 상태였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남주임은 물수건을 건네 입과 코를 막도록 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남주임은 이 과정에서 연기흡입과 눈 양쪽 각막 손상과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남주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C씨는 중증화상으로 산재 특례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건강하게 회복하여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서산지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한 공이 커 서산지청에서 자체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게 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남호문주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누구라도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SIMPAC 프레스BU

2020. 3. 17



SIMPAC 사내 식당 칸막이 설치

(주)SIMPAC은 지난 3월 17일 사내 식당 테이블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는 COVID-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는 중앙방역 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을 따른 ‘고육지책’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내 식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앉는 간격을 넓히며 직군별로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대를 조절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SIMPAC은 아크릴 칸막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 3. 20



사내 마스크 착용

(주)SIMPAC은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COVID-19가 발생한 후부터는 마스크배포를 통해 임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리직도 근무시간에 마스크를 착용을 필수로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COVID-19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요즘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 직원은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SIMPAC 프레스BU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 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SIMPAC인더스트리 2020. 4. 1

SIMPAC인더스트리, 방역소독기 40대 기탁

호흡기 감염 질환 “COVID-19”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확산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두려움에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COVID-19” 예방을 위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마스크 쓰기,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장 내 자체방역 등으로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다.

또한 저희 (주)SIMPAC인더스트리 고순도 FeSi 공장은 “COVID-19”의 지역확산을 예방하고 지역민과의 대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인근마을(광명리, 용산리, 문덕1리) 3개리에 지역민을 위한 마스크 각 200장을 전달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포항시 오천읍 관내 취약계층 물품 지원의 일환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여 오천읍에 전달함으로써 “COVID-19” 예방을 위한 지역협력에 동참하였습니다. 저희 고순도 FeSi 공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더불어 협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우리의 자부심으로 세계 최고의 페로실리콘 공장을 위해!



**No.1
고순도 FeSi**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합금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가진 고순도 FeSi 공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SIMPAC인더스트리의 가족이 된 페로실리콘BU가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며 순항 중이다. 선배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신입 사원인 후배 직원들의 열정이 하나 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합(合)이 좋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힘든 일은 좀 더 쉽게 헤쳐 나갈 수 있고 즐거운 일은 배가 된다. 페로실리콘BU의 성장과 발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좌측부터) 전기로D반 허성욱 사원, 임희석 기장, 생산팀 황덕건 대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였던 시간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여 동안 페로실리콘BU는 그야말로 '가열차게' 달렸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릴 수 없던 시간이었다. 생산을 총괄하는 임희석 기장은 "어찌 보면 5개월은 짧은 기간인데, 저희에겐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다"라며 지난 시간을 소회했다.

"지난 9월 인수인계에 들어가서 10월부터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직원의 60% 정도가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장비 다루는 법과 업무 프로세스를 동시에 배워야 했고, 배운 것을 현장에 바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교육과 생산이 함께 이뤄진 것입니다. 기술을



몸으로 익힌다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합금철 경력이 25년 정도인데,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은 처음이었기에 고3 수험생인 저희 딸과 함께 마치 수험생처럼 함께 공부했어요. 또 어떤 직원은 아이 돌잔치를 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모두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생각했고, 그 덕분에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생산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럴수록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에 매진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갔고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였다. 성공 경험은 성공 경험 대로 실패 경험은 실패 경험대로 실력 향상을 뒷받침해주었다. 그리고 페로실리콘BU가 세웠던 목표량을 초과하여 흑자로 돌아서면서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임희석 기장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직원들이 고무돼 있습니다. 이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한 덕분"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현재 페로실리콘BU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 (좌측부터) 전기로D반 허성욱 사원, 임희석 기장



끈끈한 팀워크로 발전을 이뤄가다

페로실리콘BU는 생산팀, 생산지원팀, 경영지원팀 총 세 개의 부서와 현장의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로실리콘BU 39명의 직원들을 비롯하여 협력업체 4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동고동락했기에 이들의 돈독한 관계는 강점으로 꼽힌다. 전기로 제어를 맡고 있는 허성욱 사원은 동료와 선배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동료들과 선배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은 치열하고 힘들더라도 가족 같은 동료애가 있었기에 힘을 더 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낍니다.”

고순도의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 및 환원제의 이송과 배합, 전기로 과정, 정련, 주조, 파쇄, 선별 및 포장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각의 과정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제대로 돌아가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생산팀의 황덕건 대리는 직원들 모두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단계별로 주업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분야도 담당할 수 있게 업무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로 운영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금철 전기로 분야에서 10~2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선배들과 신입사원들이 조화롭게 전기로를 운영해나가고, 현장과 지원부서 또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나간다면 페로실리콘BU는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년 노하우

합금철 전기로 분야에서 10~20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선배들과 신입사원들이 조화롭게 전기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임희석 기장은 ‘기본’을 강조했다.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발전도 있는 법. 각자 맡은 바 업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일, 업무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 원료의 낭비를 없애는 일, 직원들끼리 인사하는 일 등이 모두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모여 성장하는 페로실리콘BU가 된다”는 그의 말에 절로 수긍이 갔다.

세계 최고의 생산팀, 세계 최고의 페로실리콘 공장으로 우뚝 서는 날까지

페로실리콘BU는 앞으로도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제품보다 불순물이 더 낮은, 품질 높은 등급의 페로실리콘 생산을 준비 중이다. 또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불량품과 슬러지(sludge)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테스트를 거쳐 좋은 성과를 냈으므로 올 4월부터 생산 현장에 적용된다.



» 전기로D반 임희석 기장

79명

생산팀, 생산지원팀, 경영지원팀 총 세 개의 부서와 현장의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로실리콘BU 39명의 직원들을 비롯하여 협력업체 4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좌측부터) 생산팀 황덕건 대리, 전기로D반 임희석 기장, 허성욱 사원

“페로실리콘BU 전 직원들의 가슴 속에는 국내에 단 하나밖에 없는 페로실리콘 생산 공장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생산팀 단톡방에는 ‘세계 최고의 생산팀’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하기에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하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열정과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빨리 전하여 페로실리콘BU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희석 기장의 말에 황덕건 대리와 허성욱 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성욱 사원은 “신입사원에게 가장필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이뤄오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화답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운 적이 없었다. 그랬기에 매 순간을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했다. 목표를 향한 세 사람의 열정은 치열하기만 했다. 이는 페로실리콘BU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생산팀, 세계 최고의 페로실리콘 공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불가능이란 없다. 세 사람의 밝은 모습에서 페로실리콘BU, 더 나아가 SIMPAC 인더스트리의 밝은 미래가 엿보였다.

34,000 ton

현재, 전기로 2기에서
연간 34,000톤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연간 사용량
12만톤의 30%에 가까운 양이다.



신입사원 적응기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지원팀 최형철 사원

2020년 1월 첫 출근의 떨림이 아직까지 기억속에 남아있는 지금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공장으로 왔을 때 넓은 부지라 커다란 공장동, 많은 설비들을 보면서 압도 당하였던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생긴 발자취들과 손때가 하나씩 묻어가고 이제는 점점 친숙한 느낌이 들며 내가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사 후 초기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순간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10월 31일 공장을 인수 후 이제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모두가 아직 공장 설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 때는 정말 이 자리가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나중에 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욱이 입사 후 1달동안 안정화 되어 가나 싶었던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신적으로 혹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주변 동료들에게 털어냈을 때 그런 부담 가지 지말고 신입사원이니 아는거보다 모르는게 많으니까 당연하고 그런 고민을 하지말고 열심히 배우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료들의 격려 덕분에 부담을 덜고 업무를 배우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일을 진행하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르는 것에 대해 여러번 물어보아도 다시 설명해주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버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힘들지만 능담도 하면서 분위기도 좋게 풀어나가고 더 챙겨주고 하는 것이 '아 내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유대감을 많이 느꼈으며 좀 더 동료들 사이로 녹아 드는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의 서먹함 그것이 있었는가 생각될 정도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일하는 리중에도 재미라 같이 차근차근 일을 해쳐나감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라인이니 좀 더 뛰고 살갑게 다가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 좋게 처리하고 효율도 높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공장 인수 초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듯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하는 노하우와 그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순도 페로 실리콘 공장이 심택 그룹에서 노른자가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해쳐나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은 지식에 주위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지만 차근차근 관련 지식을 늘려가면서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하나씩 내것으로 만들어 신입사원이 아닌 한명의 사원의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배님을 좀 더 귀찮게 리듬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open in 2020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다

올 2월, 당진공장 생산팀 전기로반 남호문 주임의 이름이 언론에 실렸다. 지난해 8월 거주하는 빌라 화재사고 당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 표창을 받은 것. 회사와 일상을 넘나드는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생산팀 전기로반 남호문 주임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곧바로 방독면을 쓰고 수건에 물을 적신 뒤 소리가 난 곳으로 나갔죠.”



“언제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습관 덕분에 작년 화재때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휘한 용기

작년 8월 26일 자정, 이제 막 퇴근해 야식을 먹고 있던 남호문 주임의 귀에 ‘뽕’ 소리가 들렸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창문을 열어 보니, 아랫집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3층에 살던 세입자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화재 상황을 발견한 남 주임은 집안 한쪽에 있는 방독면을 꺼내 들었다.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치해 뒀던 안전용품이었다. 방독면을 쓰고 복도로 나가니 시꺼먼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 있었다. 이제 막 집에서 나와 정신이 없는 옆집 아주머니를 데리고 옥상으로 향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일단 아주머니에게 집으로 대피해 있으라고 말한 뒤 남 주임도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잠시 후, 바깥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아주머니는 401호에 사시고 저는 402호에 사는데, 하필 불이 난 곳이 아주머니 집 바로 아래인 301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보다 빨리 연기가 차올랐는데, 그걸 보고 다른 곳으로 대피하려다가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모양이더라고요. 곧바로 방독면을 쓰고 수건에 물을 적신 뒤 소리가 난 곳으로 나갔죠.”

역시나 아주머니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빨리 구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남 주임은 지참한 물수건으로 아주머니의 코와 입을 막은 뒤,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래층에서 불이 났기에 탈출이 쉽지 않았고, 빠져나간다고 해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아주머니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때마침 진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섰다. 집에 들어온 남 주임은 수건을 물에 적서 현관문 틈을 꼼꼼하게 막았다. 이후 방독면과 함께 안전장비로 비치하고 있던 밧줄을 꺼내들었다. 만약의 경우 다년 간의 산악회 경험을 살려 아주머니와 함께 바깥으로 탈출할 심산이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재 진압을 마친 구조대였다.



미니 인터뷰



생산팀 전기로반 황해현 주임

“불이 나면 누구든 불안하고 겁나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을 구하는 용기까지 보여주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평소에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완벽한 언행일치로 모범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주임님!”



회사와 일상을 넘나드는 안전의식

화재는 다행히 방화자의 집을 태우는 선에서 진압됐다. 구조대가 도착하자 긴장이 풀렸고, 그제야 이곳저곳에서 아픔이 전해졌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목이 따끔거렸으며 손에서도 통증이 전해졌다. 별 것 아니겠거니 했지만 생각보다 부상 정도가 심각해 천안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눈 양쪽 각막이 손상됐고, 손에는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연기를 들이마신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데만 2주가 걸렸다.

“제가 구조한 아주머니는 중증화상을 입고 산재특례까지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아주머니의 부모님께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 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셨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기에 정중히 사양했죠. 그런데 올 2월 초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주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들께서 끝내저를 추천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호문 주임은 지난 2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다. 서산지청 설립 후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1호 표창장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남 주임은 상을 받으러 갈 때도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일할 때 끊임없이 되새긴 투철한 안전의식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 힘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포항공장과 당진공장에서 줄곧 안전관리 임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당진공장을 지을 때는 설비안전담당으로서 일했고, 지금도 전기로반 주임으로서 생산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하고 있죠. 그렇기에 안전 관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집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장비를 갖춰 놔는데요. 이렇게 요긴하게 쓰고 보니 ‘역시 안전은 0순위 가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안전으로 챙기는 일상의 행복

남호문 주임은 평소에도 전기로반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한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위해요소를 찾아내려 노력하고 개선해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 나아가 자신부터 안전에 대해 솔선수범한다. 모든 작업 전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발견 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 안전보호구 완비는 기본이다. 심지어 워크숍을 가면 짐을 풀기 전에 가장 먼저 각종 위급상황 시 대피로를 먼저 파악할 정도. “이렇듯 언제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습관 덕분에 작년 화재 때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안전은 언뜻 생각하면 귀찮고 일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생산 시설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가, 숙련된 직원 한 사람의 힘을 잃는 셈이죠. 그렇기에 안전해야 일도 잘 돌아갑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 점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임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미니 인터뷰

생산팀 전기로반 김병찬 주임

“남호문 주임님은 매사 상대방을 배려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며 후배들을 차분하게 이끌어주는 친형 같은 분입니다. 위기상황에서 발휘하신 기지로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IMPAC의 현재와 미래를 구매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최고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필요한 원료와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반대로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현재의 생산라인 정상 가동은 물론, 앞으로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 SIMPAC의 각 구매팀은 이렇듯 자신들의 업무를 통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구매하고 있다.

생산의 첫 단추

필요한 자재가 갖춰져 있어야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는 만큼, 구매 업무는 생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BU 외주관리팀
송성강 과장

》홀딩스
합금철구매팀
김예원 대리

》홀딩스 기계구매팀
전기태 사원

》홀딩스 합금철구매팀
이익호 과장



네 분은 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이익호 과장 합금철구매팀은 메탈BU의 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팀입니다. 포항공장과 당진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전 세계 곳곳에서 구매해 오는데요. 광석 종류에 따라 각각 담당자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망간 광석 및 페로실리콘 원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대리 저는 주로 코크스와 기타 환원제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팀은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이 돼 있긴 하지만, 특정 이슈가 있거나 합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스스로없이 힘을 합칩니다. 요즘에는 작년 11월에 편입된 포항 페로실리콘 공장의 원자재 구매 업무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송성강 과장 프레스BU 외주관리팀은 팀명 그대로 프레스 생산에 필요한 외주 부품들을 발주하고 전달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납기 및 단가 협의도 함께 진행하고, 외주 부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맡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소재 구매 및 기어류 가공 구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기태 사원 저는 이제 막 입사해서 한창 업무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계구매팀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서 구매하는 여러 물품 중에서도 전기 쪽 관련 부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매 업무에도 각각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익호 과장 당연히 같은 구매 업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합금철구매팀의 경우, 합금철 시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격 등락에 따라 구매량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말연시에 연간 구매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되,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구매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김예원 대리 예컨대 망간의 가격이 높아지면 재고량에 따라 구매량을 어느 정도 줄이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미리 구매를 진행해서 원가 절감에 일조하는 식입니다. 이렇듯 업무를 정해진 틀에 맞추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 팀에서는 각자 담당한 원자재별로 시황 보고서를 매주 작성, 꾸준히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송성강 과장 설계팀에서 도면을 받으면, 이를 적절한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제작을 의뢰하는데요. 기어류 같은 구동부 부품은 프레스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협력업체 공장에 직접 찾아가 핵심 제작 포인트를 전달하고 생산 현황을 관리합니다. 사무실 업무 못지 않게 협력업체 생산 현장도 중요한 것이죠.

전기태 사원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재고량을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매업체와의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선배님들께 그 요령과 조언을 들으면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 홀딩스 기계구매팀 전기태 사원

» 프레스BU 외주관리팀 송성강 과장

종합적 분석·판단

원자재 가격 · 시장 동향 · 경제 이슈 · 협력업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제대로 된 구매 업무가 이뤄집니다.

업무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익호 과장 작년 10월 합금철구매팀에 오자마자 오랜 거래관계를 맺어 온 광산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팀원들에게 이것저것 질문하고 여러 경로로 공부하면서 대응해 나갔는데,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돌아켜 보면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실제 계약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죠. 덕분에 한층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대리 3년 전 중국의 환경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원자재 공장도 광산업체가 생산량을 줄이고, 심지어 문을 닫기도 했는데요. 당황스러웠지만 중국 정부의 동향과 상황에 따라 새로 계약을 맺고 차액분을 지급받는 등 우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이를 계기로 시장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죠.

송성강 과장 2016년에 한 협력업체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폐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는 끝에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돌발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하자'고 마음먹었죠.

전기태 사원 입사 6개월 차인 저로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인상 깊은데요. 선배님들이 업무 중간중간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셔서 무리 없이 맡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께 잘 배워서, 언젠가 후배가 들어온다면 지금의 선배님들처럼 넉넉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업무 적응을 돕겠습니다.



네분의 업무 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익호 과장 보통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날의 업무를 준비합니다. 어제 진행한 일을 살펴보고 오늘 진행해야 할 일을 정리한 후, 업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관련 사항을 챙기죠. 아직 업무 적응이 필요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합금철 구매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예원 대리 저는 눈에 띄는 업무를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미루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담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이어 나가서, 포항 페로실리콘 공장의 원료 수급이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송성강 과장 쉬고 와서 집중력이 높은 오전 시간에 주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오후에는 대체로 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죠. 이렇듯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제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 프레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기태 사원 신입사원인 저는 사실 업무 팁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대신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는 투두리스트(To-Do List)를 만듭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는데요. 연말쯤에는 한 사람 몫을 충분히 수행하는 팀원이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성장의 마중물

기업의 수익은 생산과 직결되고, 생산의 밑바탕은 구매입니다. 신속 · 정확한 구매 업무로 SIMPAC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홀딩스 합금철구매팀 김예원 대리



미니 인터뷰

구매 업무는 ()이다.



저에게 구매 업무는 '원'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단 1원이라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구멍이 났다는 뜻이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일일이 훑어서 1원의 행방을 찾아야 비로소 구매 업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홀딩스 합금철구매팀 이익호 과장



구매 업무는 '우렁각시'라고 생각해요.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어드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렁각시처럼 말이죠. 홀딩스 합금철구매팀 김예원 대리



구매는 영업·설계 등 앞 단의 일과 생산이라는 뒷 단의 일을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는 지원 업무입니다. 따라서 구매 업무는 생산의 전 과정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운할유'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스BU 외주관리팀 송성강 과장



구매는 '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 업무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마감의 연속이기도 하고, 마감까지 제대로 완수해야 비로소 모든 구매 업무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몸에 밸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홀딩스 기계구매팀 전기태 사원

» 홀딩스 합금철구매팀 이익호 과장

세대별 워라벨 탐구생활

사회학자들의 보편적인 세대 구분에 따르면 세대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대를 가르는 기준과 경계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크게 보아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일하는 모습도, 방법도 다릅니다. 여가를 즐기는 문화도 다릅니다. 각 세대별 특징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베이비붐 세대의 워라벨

50대~60대 은퇴 이후의 삶

보통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이후의 불경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세대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세계 최빈국에 가깝던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낸 세대이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라 가정보다 직장을 우선으로 삼고, 회사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가 생활은 기껏해야 1년에 한 두 번, 가족들과 함께 의무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방법 말고는 잘 모릅니다. 동창들과 만나 떠들썩하게 옛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 말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흔한 '혼밥(혼자 먹는 밥)'이나 '혼여(혼자 하는 여행)'도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천 활동

혼자 하는 여행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여행하기를 권합니다. 늦기 전에 용기를 내 보세요. 굳이 해외 여행을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골목, 가까운 도시, 가까운 해변이라도 혼자 잠시 걸어보세요. 굳어지는 머리, 딱딱해지는 생각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인생 2막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워라벨은 은퇴 이후를 고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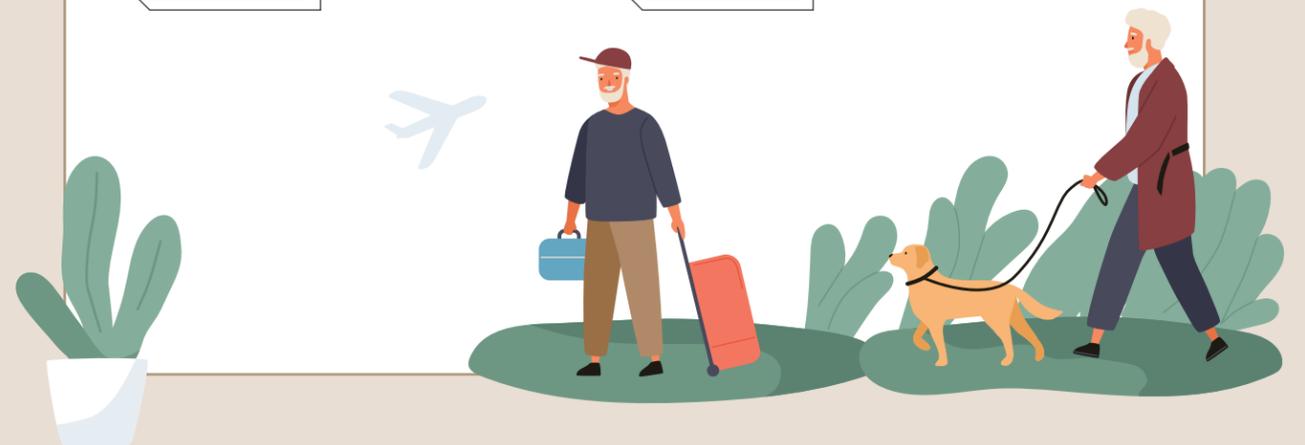
BOOK 추천 도서



여행하는 인간
문묘한 지음, 해냄
정신과 의사 문묘한 선생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얻은 심리학, 인문학 에세이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지음, 쌤앤파커스
밀레니엄 세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



(2) X 세대의 워라벨

30대~40대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

90년대에 오렌지족, 신세대라는 말을 들으며 변화를 이끌던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낸 경쟁력과 경제력에 IT 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왔습니다. 닷컴기업의 창업 열풍도, 닷컴버블의 붕괴도 체험한 세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X세대들은 이제 IT기술을 활용해 여유를 즐깁니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애용하던 X세대는 다음 카페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이 편안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물려준 안락함을 누렸으면서도 밀레니엄 세대의 치열한 스펙 경쟁에는 내물리진 않은 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X세대의 워라벨은 인공지능의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와 직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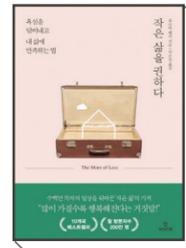
추천 활동

앞으로는 평생 직장 대신 평생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죠. X세대의 워라벨은 라이프(생활)가 아니라 워크(일)를 더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한가지 찾아서 꾸준히 즐기길 바랍니다. 글쓰기나 엑셀 다루기 같은 현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미라면 더욱 좋겠고요. 성향에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식물을 가꾸거나, 프리 다이빙을 배워도 좋겠어요. 될 하든 전문가 수준으로 잘 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워라벨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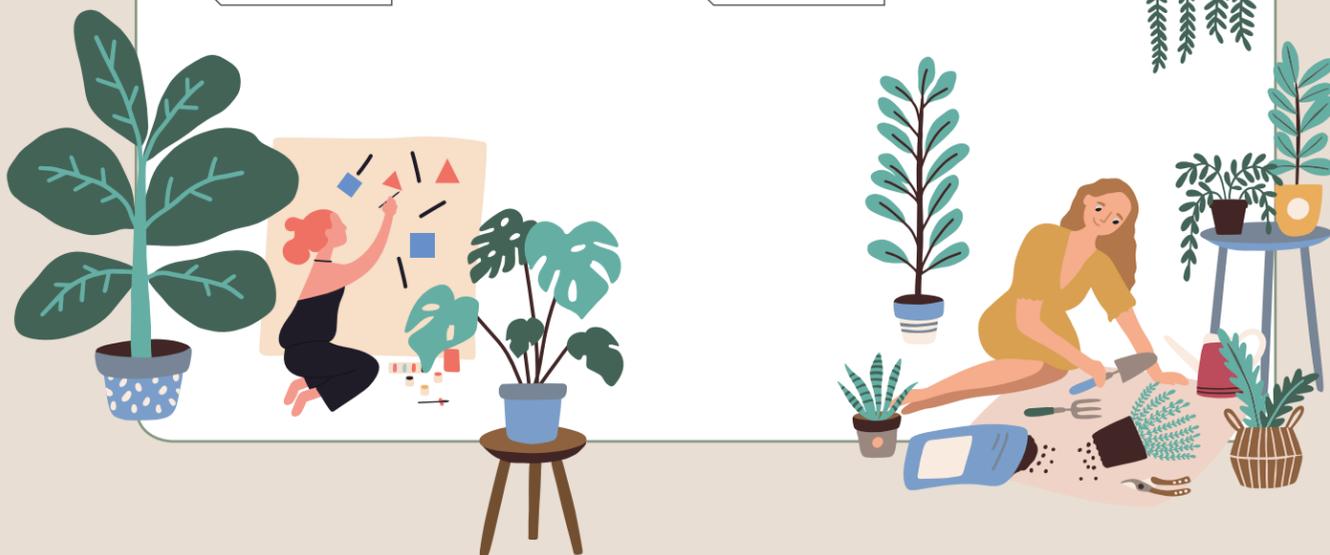
BOOK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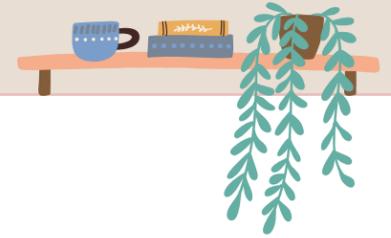
초예측
유발 하라리 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세계의 석학 8명이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공지능'과 '격차'를 꼽고 대담을 나눈 책



작은 삶을 권하다
조슈아 베커 지음, 와이즈맵
욕심을 덜어내고 가진 것을 즐길 때 얻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금전적 자유



Work-life balance 30-40



(3) 밀레니엄 세대의 워라벨

10대~20대 디지털 노마드

밀레니엄 세대에게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의미는 윗세대들과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세대는 일과 생활이 거의 분리되지 않는 직업 영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를 선호할 확률이 큼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라면 아마 워라벨을 잘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쓰고 밀레니엄 세대가 읽는 책들의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군은 하기 싫은데 일은 잘하고 싶다]라던가 [견디는 힘] 같은 책은 물론이요, [오늘부터 딱 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같은 책들을 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 '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일을 잘 하는 것도, 여가를 잘 보내는 것도 '나의 선택'인 거죠.

추천 활동

밀레니엄 세대는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도 셀카를 찍고, 맛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영상을 남깁니다. 한강 둔치에서 운동을 해도 삼각대와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SNS가 되었던 유튜브가 되었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기록을 남기고 업로드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쇼핑물의 모델이 되고, 피트니스 업계의 셀럽이 되고, 여행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인플루언서로 거듭납니다. 무엇이든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남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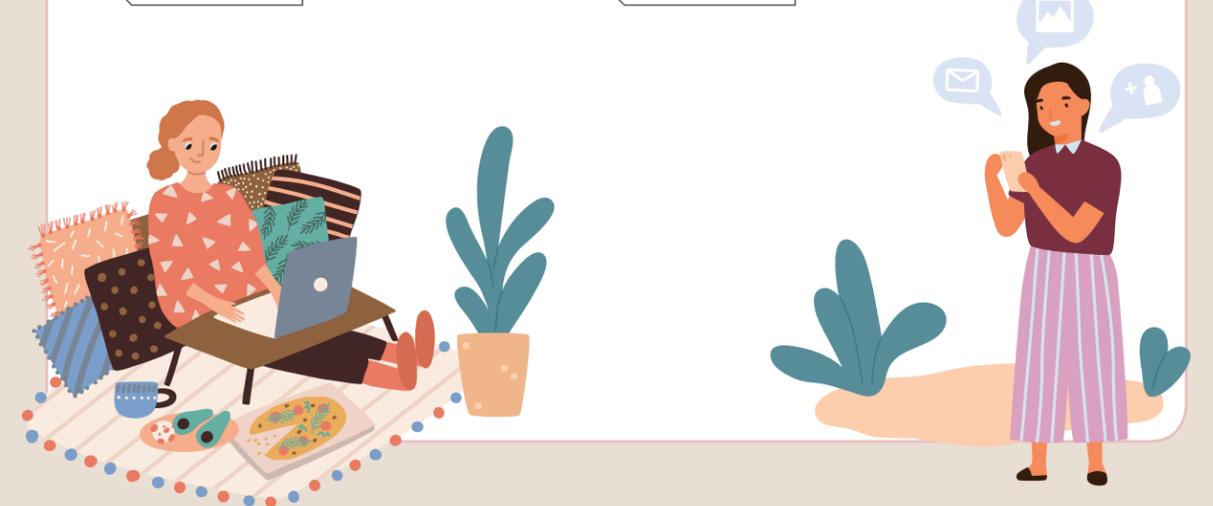
BOOK 추천 도서



크러싱 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게리 바이너척 지음, 천그루숲
소셜 미디어의 1인자인 게리 바이너척이 알려주는 열정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큐레이션
스티븐 로젠baum 지음, 이코노믹북스
정보 과잉 시대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과 콘텐츠를 걸러내는 힘을 가져야한다고 알려주는 책



Work-life balance 10-20

우리 서로 '통하고' 있나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직원과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직원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업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지속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과

진정한 화합에 그 열쇠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에 답이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려면 조직 및 직원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 경우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창의력과 혁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직의 분위기가 점차 폐쇄적으로 바뀌어 결국에는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SIMPAC인들은 SIMPAC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번 설문 중 '조직에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SIMPAC인 61%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3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6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반면 9%가 '그렇지 않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져오는 변화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부서와 부서 사이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 회의해서 의견을 정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으로 변하면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책임감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더욱 높은 업무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나 팀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진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인 '우리 부서는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하급자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설문에서는 61%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3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9%가 '그렇지 않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우리 부서는 업무 외의 개인적인 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서도 상급자와 의논한다'라는 설문에서는 29%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했다.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설문인 '나는 회사 (부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60%의 응답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나의 업무활동은 우리 부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설문에서는 77%의 응답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SIMPAC인 스스로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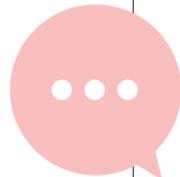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소속감과 업무 성취도를 높인다

팀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회사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일이 팀 단위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협업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많은 회사들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다.

팀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에 관하여 묻는 '우리 팀원들은 팀 업무를 통해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7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와 관련부서는 우리 팀 업무의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0%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41%에 달했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 직원 개개인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SIMPAC인들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각 부서의 목표보단 회사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의 경영 방향과 업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신세대와 중장년층이 어우러질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타부서에서 생활하며 그 팀의 성격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조직문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현 사회를 '소통의 시대'라고 말한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직원 개개인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선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팀워크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먼저 돌아보기'일 것이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말이 있으니 말이다. 모든 것은 바로 나부터 시작이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SIMPAC人들은 SIMPAC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3월 20일부터 11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진행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 진행
기간 : 2020년 3월 20일~ 3월 31일
참여 : SIMPAC홀딩스, SIMPAC, SIMPAC 인더스트리, 리스텍비즈 등
SIMPAC그룹 전 계열사 참여 (총 122명 설문 참여)

귀하가 속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팀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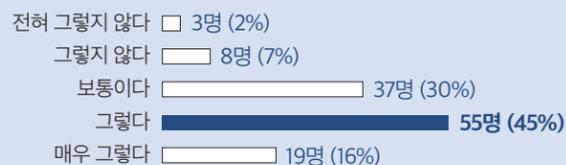
01 조직에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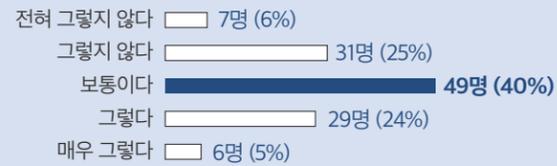
02 우리 조직의 동료들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03 우리 부서는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하급자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04 우리 부서는 업무 외의 개인적인 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서도 상급자와 의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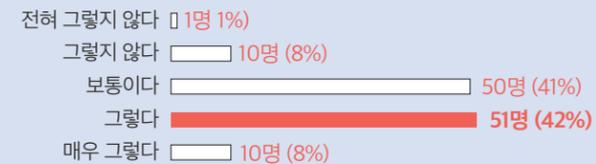
05 우리 조직은 비공식적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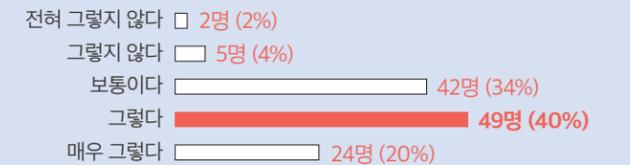
06 우리 팀원들은 팀 업무를 통해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07 회사와 관련부서는 우리 팀업무의 결과에 만족한다.



08 나는 회사 (부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09 나의 업무활동은 우리 부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업무라고 생각한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10 화합,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조직문화발전을 위한 심팩인들의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목표보다
회사 공통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게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보다
성과,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

★
직원간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업무들 같은 방법으로만
진행하기보다
소통과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

★
부서 내 단합도 좋지만
타 부서와 융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로 관심은 방방이래
생각합니다.

★
심팩의 조직문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 대화 의사전달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를 통한 그룹방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
각 부서간 부서 이기주의
지양하고 화합과 각 담당
업무들 존중해주는 자세를
갖도록 사내 분위기 조성 및
노력 필요

내년 20주년 해외여행
꼭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회사라 가족의 만족감이
애사심과 실적으로
나타낼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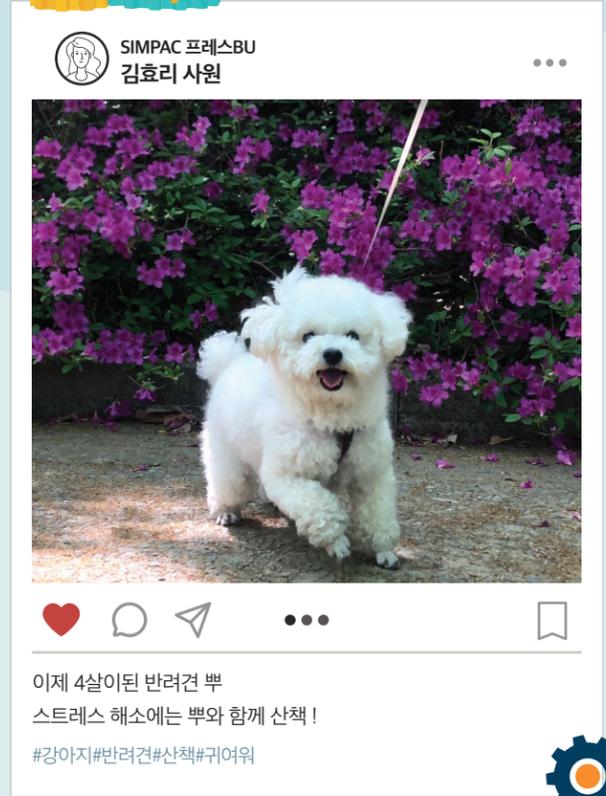
신세대라 등, 장년층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걸관성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걸관성있는 제도 및 운영로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함께'를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함께스타그램

이 코너는 사우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SIMPAC-STARGRAM



It's a **BABY**!
Congratulations!

탄생을
축하합니다

2020. 02. 18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정원식 과장



Soo ho



3.08Kg로 태어난
너무 예쁜 수호
앞으로 건강하게만
쑥쑥 자라자!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 | | | | | | |
|--|--|---|--|---|---|
| <p>SIMPAC 홀딩스</p> <p>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p> | <p>SIMPAC 프레스BU</p> <p>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p> | <p>SIMPAC 메탈BU</p> <p>국내 Top-tire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p> | <p>SIMPAC 인더스트리</p> <p>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p> | <p>SIMPAC 주물</p> <p>국내 대표 주조 메이커
· 주조주물 생산</p> | <p>리스테크비즈</p> <p>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이연 생산</p> |
|--|--|---|--|---|---|